

2013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마치고

■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11일(금)

■ 장 소 : 창원 컨벤션센터(CECO)

2013년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10월 10~11일, 양일에 걸쳐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계학회는 수도권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여 명의 인원이 등록한 가운데, 논문 발표 편수도 기조강연 1편, 삼성고분자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1편, 초청강연 103편, 일반구두발표 65편, 포스터발표 906편 등 총 1,076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국내 최고의 학술대회로 성장한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첫날인 10월 10일에 2013년도 학회 수석부회장직을 수행 중이신 롯데케미칼(주) 허수영 사장님께서 “한국의 석유화학산업과 롯데케미칼의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셨습니다. 2013년 삼성고분자학술상 수상기념 강연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공학연구소 권익찬 박사님께서 “Molecular Imaging with Theragnostic Nanoparticl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열린 총회에서는 2014년도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해 주실 경희대학교 김정안 교수님에 대한 소개, 학회상 수상, 평의원 투표 결과와 더불어서 2013년도 중간결산 및 회무보고와 함께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심의, 지부보고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암고분자상을 박오욱 교수(KAIST), 롯데화학연협력상을 김진국 교수(경상대학교), 도레이고분자상을 최동훈 교수(고려대학교), LG화학고분자학술상을 이재석 교수(광주과학기술원), 중견학술상을 박태호 교수(POSTECH)와 이택승 교수(충남대학교), 우수논문상을 박기동 교수(아주대학교)와 이동원 교수(전북대학교), MR-Springer Award를 신홍수 교수(한양대학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2013년 추계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님께서서는 화환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10일 저녁에 있었던 간친회 행사에서는 원로회원, 현 임원진, 신진회원의 발전적이면서도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간친회 행사에는 일본고분자학회의 Mitsuru Akashi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올해의 고분자 연구논문발표회 학술프로그램은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ranostic Macromolecules, Molecular Self-Assembly from Small Molecules and Liquid Crystals to Macromolecules, Korea-Taiwan Joint Symposium on Functional Polymers,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 분자전자 부문위원회, 고분자구조 및 물성, 고분자가공/복합재료, 생체모사 나노구조체, Neutron & X-ray Scattering for Polymer Science,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고분자합성, 대학원생 구두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Korea-Taiwan Joint Symposium on Functional Polymers에서는 대만 고분자 학회의 Chien-Lung Wang, Chi-How Peng, Wen-Chung Wu, Hsein-Yeh Chen 교수 등 네 분의 대만측 초청연사의 강연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황리에 심포지움을 마감하였습니다. 2010년 춘계학회부터 시도된 대학원생 구두발표 프로그램은 영어발표 18편을 포함한 총 63편의 발표를 통해 완전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고분자학회를 이끌어 나갈 16분의 신진연구자들로 구성된 특별 심포지움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양일간에 걸쳐 16개의 회장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발표와 심층 토론을 통하여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느 국제학술대회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발표로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에는 10일 오전과 11일 오전 및 오후, 총 3회에 걸쳐 90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계학회서도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 논문들 중에서 학술위원회에 의해 사전 및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께서 연구창의성, 연구내용, 발표자료의 우수성 및 발표력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총 42편의 응모 논문 중 8편의 논문을 우수논문발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 수에 비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의 응모비율이 낮고, 창원에서의 열리는 학회임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늦춰진 오전 9시 30분으로 공지된 포스터 게시 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심사 진행이 늦어지는 점과 같

은 부분들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포스터 발표를 취소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개의 기기전시 부스 및 10개의 기업체 홍보 부스 등 총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시홍보 행사를 하였는데, 전시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전시부스를 참여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각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기기전시 및 기업체 홍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고, 이에 따른 이벤트로 11일 마지막 행사로써 약 15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학생 회원에 대한 경품 추첨행사가 있었습니다. 응모한 회원 중 29명의 회원님들이 경품을 수령하는 즐거움을 만끽했고, 이 유쾌한 행사를 끝으로 이번 학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본 학술대회는 단지 경직된 학술대회가 아닌 모든 회원의 참여로 경쾌하고 즐겁게 진행되는 학술축제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두성 회장님께서 직접 1등상에 대한 추첨 및 시상을 하시며 학생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시는 모습은 향후 고분자학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훌륭한 학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분자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님들,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신 organizer 분들과 성공적인 세션 진행을 위하여 애써 주신 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부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 기업 및 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두성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과, 학술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윤호규 전무이사, 안동준 총무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담당해 주신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회 등록과 학회장 운영을 위해 녹색 조끼를 입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학생 staff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분자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사 이승우(영남대학교)〉

